

문화부 기자가 선정한 광주비엔날레 인상적인 여섯 작품

난해한 현대미술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는 만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작품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여느냐는 순전히 관람객의 몫이다. 평론가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이 '나'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올해 광주비

엔날레에는 38개국 103팀(111명)의 작가가 참여해 111개의 주제로 모두 413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개막 한달을 맞아 본사 문화부 기자들이 '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한 인상적인 작품 6점을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품을 찾아보시길.

◇옥인콜렉티브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권력이 짓밟아도 풀꽃은 핀다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괴상한 기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옥인콜렉티브의 영상작품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는 정부와 권력을 비판한다. 앞서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풍자한 홍성담 작 '세월호월'의 비엔날레 전시를 반대했다. 하지만 권력이 아무리 찾아내 막는다고 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와 같은 작품은 결국 풀꽃처럼 전시장 구석에 피어나는 것이 예술이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광주주의 열적없는 문화행정'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는 작품이다.

◇테츠야 이시다 '리콜'

경제위기 속 현대인의 불안... 그림



'리콜'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 앞에 조립형 장난감처럼 포장돼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도구를 이용해 인간을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기술자를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생각거리를 던진다. 침대가 아닌, 폐차에 누워 있는 병환자들의 공허한 눈동자('기회를 기다리며')나 비닐봉지 옷을 입고서 정크 푸드를 먹는 남자('무제'), 가정용 난방기가 부모 대신 아이에게 온기를 전하는 '온실' 등도 인상적이다. 이번에 걸린 작품 이외에도 작가의 '다른' 작품이 공급된다. 그림 속 얼굴은 모두 작가 자화상이다.

◇카르슈텐 힐러 '일곱 개의 미닫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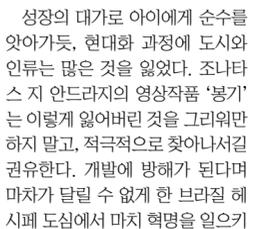
큐브 속 착각... '진짜 나'는 누구인가



자동으로 열리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문과 문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관람객은 자신의 모습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 '큐브'의 한 공간에 들어선 느낌마저 든다. 사람들의 대부분 일상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통해 시작되고, 또 끝이 난다. 그만큼 문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작가는 익숙한 사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관람객들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순간을 이야기한다. 단 이 작품은 단체 관람객에 휩쓸려서 관람하게되면 재미를 느낄 수 없다.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 '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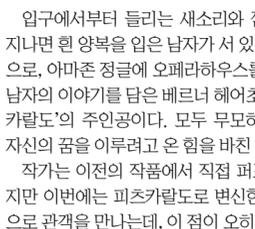
자본·이념 벗고 말 달리자



성장의 대가로 아이에게 순수를 앗아가듯, 현대화 과정에 도시와 인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의 영상작품 '봉기'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길 권유한다. 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마차가 달릴 수 없게 한 브라질 헤시페 도심에서 마치 혁명을 일으키는 것 처럼 말을 타는 장면을 담았다. 영화 촬영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말을 풀어 놓았고, 마차를 타는 시민들의 기쁨과 환호성을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본과 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피츠카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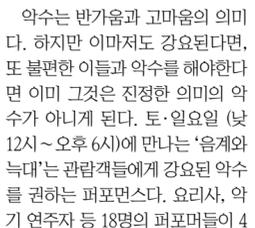
한 편의 오페라... 배우는 작가 본인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새소리와 깜깜한 진입로를 지나면 흰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오페라광(狂)으로, 아마존 정글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려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베르너 헤어초크의 영화 '피츠카랄도'의 주인공이다. 모두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온 힘을 바친 한 사나이다. 작가는 이전의 작품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피츠카랄도로 변신한 홀로그램 형상으로 관객을 만나는데, 이 점이 오히려 흥미롭다. 스토리에 따라 영상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때의 느낌은 꼭 좌절했다 또 꿈을 꾸는 모습인듯 아련하다. 카루소 음성으로 들은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작가의 표정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알로라&칼사디아 '음계(기질)와 늑대'

불편한 악수, 어느새 편해졌네



악수는 반가움과 고마움의 의미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요된다면, 또 불편한 이들과 악수를 해야한다면 이미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악수가 아니게 된다. 토·일요일(낮 12시~오후 6시)에 만나는 '음계와 늑대'는 관람객들에게 강요된 악수를 권하는 퍼포먼스다. 요리사, 약기 연주자 등 18명의 퍼포머들이 4전시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실로 들어서려면 이들과 악수를 해야만 한다. 퍼포머들은 관람객을 환영하지만 정작 관람객은 이들과의 악수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악수와 함께 퍼포머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불편함마저도 즐거움이 된다.

'소극장 열전' 이번엔 광주

9~12일 시어터 연바람·예술극장 통...대구 등 7곳

■ 2014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광주

일정	공연	장소	
9일(목)	4시	개막식	씨어터연바람
	7시30분	하늘도 설화(광주·푸른연극마을)	씨어터연바람
10일(금)	4시	돌아서서 떠나라(구미·(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	예술극장통
	7시30분	블랙메디아(춘천·극단 도모)	씨어터연바람
11일(토)	4시	청춘예찬(전주·극단명태)	예술극장통
	7시30분	아무것도 아닌 진실(대전·극단 놀자)	씨어터연바람
12일(일)	4시	낭만수사실(부산·공간아트컴퍼니)	예술극장통
	7시30분	황소 바람 부는 날(대구·극단 한울림)	씨어터연바람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9일부터 12일까지 씨어터 연바람과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 대구 등 7개 도시 극단이 참여한다. 지난 9월1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각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했으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광주에 모여 합동 공연을 진행한다.

푸른연극마을이 무대에 올리는 '하늘도 설화(원제 등대)'(9일 오후 7시30분)는 등대지기 소장으로 부임해 하늘도로 온 박일우와 30년 동안 등대지기로 근무한 한석중 소장의 이야기를 서스펜스와 코믹을 버무려 그린 작품이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의 '돌아서서 떠나라'(10일 오후 4시)는 유명 희극작가 이만희의 작품이다. 독특한 여사 채희주와 조폭 건달 공상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전도연·박신양 주연의 영화 '악수'의 원작이기도 하다.

극단 도모(춘천)가 선보이는 '블랙 메디아'(10일 오후 7시30분)는 원주민의 딸 메디아와 애인 제이슨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웨슬리 이노크의 원작으로 일본의 오카이나 오미지가 연출을 맡아 단원들과 작업했다.

전주 극단 명태가 공연하는 '청춘예찬'(11일 오후 4시)은 수많은 히트작을 발표한 박근형의 대표작이다. 박해일·고수희 등이 출연했던 작품으로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스물두살 청춘의 이야기를 아프게 그리고 있다.

대전 극단 놀자의 '아무것도 아닌 진실'(11일 오후 7시30분)은 국내에서 초연되는 존 카니의 작품으로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세에서 비롯된 야근 과거사를 가진 가족의 이야기다.

마지막 날 무대에 오르는 부산 '공간 아트컴퍼니'의 '낭만 수사실'(12일 오후 4시)은 제일 교보 작가 김종용의 '아티미 살인사건'이 원작으로 부산 광안리 해변을 배경으로 하고 추억의 가요를 집목했다. 또 대구 극단 한울림은 '황소 바람 부는 날'(12일 오후 7시30분)을 공연한다.

그밖에 일주 공연장에서는 대만 연출가 중자오와 함께하는 연기 워크숍, '전국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동아시아 네트워크 지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린다.

티켓 가격 일반 2만5000원, 중고생 1만5000원. 푸른연극마을 카페 예매시 일반 1만 5000원, 중고생 1만원. 패키지 관람권 할인.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의 '하늘도 설화'.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회합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 예약문의 (062)525-2111 | www.geumsoojang.com

특허 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